교회소식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2012년 교회표어: 그 한사람, 그 예배자 (요한복음 4:24)

◎ **창립주일:** 오늘은 교회 창립 13주년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성도의 거룩한 교제 있는 교회,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 **창립 감사 축제:** 교회 창립 13주년 감사 축제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여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귀한 축하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시: 7월 11일 (수) 오후 6시 장소: 본당 및 Hall
진행 - 1부: 예배, 2부: 축제 및 교제 담당: 교역자, 김수원 집사

◎ **감사:** 한 주간 기도회에 참여하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계속 기도의 줄을 잡고 기도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침 식사로 섬겨주신 선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들 드립니다.

◎ **모임:** 바자회 준비를 위한 담당자 모임이 예배 후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이동술, 이정인, 김순자, 정혜숙)

◎ **꽃꽂이:** 꽃꽂이: Boutique City Flowers 이순옥 집사가 준비해셨습니다.

◎ **중보기도:** 공동체를 위한 중보기도 신청서 계속 제출 바랍니다.

◎ **월례회:** 2남 선교회(65-59년생), 3여 선교회(60-53년생) 월례회가 유아부실과 아동부실에서 각각 있습니다.

교우소식

이사: 이상재, 박혜숙 집사 Unit W, 6 Carlton Core Rd, Grafton 021-488-158

갈보리 교회가 돕는 선교지

해외 선교

루마니아: 김유정선교사 (집시사역)
중국: 김강한목사 (탈북자사역)
바누아투: 삼마교회 및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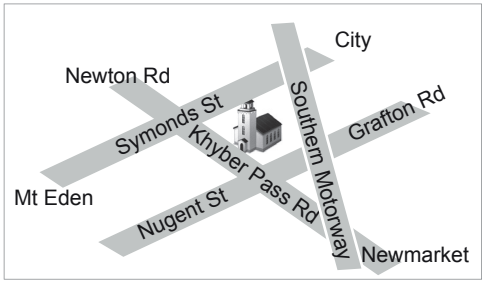
국내 선교

밀알장애우 봉사

예배시간 안내

예 배	시 간	장 소
주일1부예배	주일 PM 1:00	본당
주일2부예배	주일 PM 3:00	Chapel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본당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Chapel
아동부	주일 PM 1:00	Chapel
중고등부	주일 PM 1:00	별관

오시는 길



2012년 7월 8일
창립 13주년 감사예배

14권 27호
교회창립 1999/07/14

www.calvary.org.nz

2012 그 한사람 그 예배자 (요4:24)

교회가 그렇게도 좋아?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마주하면서 교회로 가기 위해 출발한 목요일 오전입니다. 그러다가 말겠지 하는 가벼운 생각으로 집을 나섰는데 내리는 비가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내리퍼붓는 듯한 비에 미처 빠지지 못한 황토물이 도로를 채우기 시작해 차들은 서행을 하다못해 이내 멈추고 도로 좌우에 하나둘씩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신있고 용감하게(?) 고속도로 입구까지는 왔지만, 도저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조심스럽게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흠뻑 젖은 바지를 입은 채 거실을 서성이는데 아내가 "왜 젖은 옷을 그냥 입고서 있느냐"라고 합니다. "응, 비가 좀 잦아 들면 다시 교회 가려고" 그러자 아내는 "교회가 그렇게도 좋아? 내일 가면 될 텐데…" 옆에 아이들도 일제히 "그래 맞아 아빠 교회가 그렇게도 좋아?" 라고 아내의 말에 지원사격을 합니다. "그래 아빠는 교회가 그렇게도 좋다." 그 갈보리 교회가 13살이 되는 주일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수년을 한결같이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교회를 섬겨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쉼 없는 기도와 섬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이 13살, 아직은 어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위상을 조금씩 조금씩 갖추어 가야 할 나이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총회 헌법에 교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여 그들로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신다. 이 무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전이다. 이 무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성도들인데 이를 가르쳐 거룩한 공회 곧 교회라 한다." 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교회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란 건물이나, 예산이나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건강한 것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교회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건강하지 못한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 중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온전한 사귐과 나눔이 있는 건강한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었습니다. 그다음으로 안디옥 교회가 건강한

(안에서 계속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갈보리교회 담임목사: 이태한
St. David's Presbyteri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 - 369-5077 Ph: 09-475-6312 PO Box 8298 Symonds Street Auckland 1150

주일 1부 예배

오후 1시 — 인도:이태한목사

전주		반주자
예배로 부름	사 60:1-2, 딤전 3:15	인도자
개회송		찬양대
참회의 기도		다함께
※ 찬송	64장	다함께
※ 성시교독	42. 시편 98	다함께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270장	다함께
대표기도		최득수집사
성경봉독	로마서 16:1-5	인도자
찬양대찬양		나무십자가찬양대
설교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한경균목사
찬송	191장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감사연주		김용현형제
교회소식		인도자
※ 응답송	살아 계신 주(1,3절)	다함께
※ 축도		한경균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일2부예배 (15:00)

인도: 심창진 목사
찬양 / 심창진 목사
기도 / 박덕철 집사
성경봉독 / 눅 2:15-20
설교 / 어머니의 마음 / 심창진 목사
찬송 / 약할 때 강함 주시네
헌금기도 / 인도자
광고 / 인도자
축도 / 심창진 목사

수요예배 (19:30)

이번 수요예배는
창립 13주년 감사
축제로 드립니다.

건축헌금
지난주: $100.00
총계: $611,993.19

7월 교회일지

특별 새벽기도회:
7월 2일 ~ 7월 6일

창립 기념주일:
7월 8일 (주일)

창립 감사축제:
7월 11일 (수)

7월 예배봉사자

예배안내 :
박일영/임혜자

새신자 안내:
심경순/김광자

주차안내:
양봉욱/민광호

주방봉사
한상순/김윤숙/장태옥/원미경/박제란

기도순서

이번 주 수요기도:	박영태 집사
이번 주 애찬기도:	감사축제
다음 주일 1부:	이광희 장로
다음 주일 2부:	김수현 청년
7월 18일 수요기도:	박은경 집사
7월 18일 애찬기도:	원미경 집사
7월 22일 1부:	현석호 장로
7월 22일 2부:	진혜령 전도사

교회 창립 13 주년 아침에

할렐루야,

주님이 기초를 놓고 세우신 갈보리 제단이 올해로 13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부흥케 하시여 이 땅에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날들을 생각하면 많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론 성장기에 수반되는 고통과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우리를 더욱 단련하고 건강하게 하여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년 남짓 지난 2001년 초 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어느새 1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지만 그때의 설레임과 감사는 여전히 우리 부부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현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St. David 교회 맞은 편에 있는 Anglican Church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로 130년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본당 내부가 노아의 방주 안을 연상케 하는 형태로 지어져서 교회당에 앉아 있으면 성령이 나를 감싸 안은 듯하여 늘 평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 친교 시간이 되면 본당 옆에 있는 친교실에서 전 성도가 함께 둘러앉아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서로의 손맛이 빚어낸 정성 어린 식사로 향수를 달래는 정겨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민생활의 아픔과 외로움을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신앙으로 이겨 나가자고 서로의 용기를 북돋우며 현실을 삭히는 성도 간의 교제는 그야말로 기쁨과 감사, 그리고 성령충만한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이만큼 살아온 것도 아마 그때의 힘이었음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힘이 들 때는 늘 그때를 생각하며 초심에서 다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신앙은 성령의 인도 하심 가운데 교회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함께할 때 나 자신도 모르게 신앙이 나날이 성숙하여지며, 이것이 내 안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듭난 삶임을 알게 되고 점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짐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사단은 우리의 연합을 시기하여 인간의 연약한 부분에 간교하게 침입하여 우리를 부서뜨리고,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며 훼방하려 할 때도 있었습니다. 13년의 세월이 무척 짧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난날을 되돌아 보면 교회가 성장할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분열의 영이 틈타서 서로를 힘들게 하며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였던, 그래서 그 순간이 결코 짧다는 표현보다는 긴 세월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힘든 시절도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서로 연합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어둠의 세력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범할 수 없도록 믿음의 경주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함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우겨 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고전 4-8)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광야 같은 이민 생활에 누구 하나 의지할 때가 없고 나 홀로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나를 험담하며 비방하고 질시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가정에 문제로 근심하며 내일을 염려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때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며 기다리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낙담하고 절망 중에서라도 담대함을 갖고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오로지 말씀 앞에 서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구원의 손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13주년을 맞아 더욱 성숙하여지며, 모든 공동체 가정들이 한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갈보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돌아보심이 영원하시기를 기도하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세상을 향한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 이광희 장로

갈보리 앨범 1 -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갈보리 앨범 2 - 바누아투 단기선교

Happy Birthday, Calvary Church!

갈보리 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갈보리 교회의 간략한 연혁

1999년 7월 18일 City 한인교회"로 창립예배 드리다
1999년 10월 24일 "갈보리교회"로 교회명 변경하다
2001년 2월 4일 Holy Sepulchre Church로 예배당 이전하다
2007년 1월 21일 Auckland Girl's Grammar로 예배당 이전하다
2009년 4월 19일 St. David's Church 로 예배당 이전하다
2009년 7월 19일 김성국 목사 사임하다
이태한 목사를 담임목사로 추대하다
2009년 11월 22일 이태한 목사 위임하다
2009년 12월 13일 장로 임직식 거행하다

공동체를 위한 금주의 기도제목

1. 북한 공동체
북한의 수많은 아동들이 노동 수용소에 수감되어 강제 노역에 시달리며, 정치적인 이유로 부모와 함께 갇힌 어린이들이 처벌을 받고 있는데 북한에 어린 영혼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도록. 탈북자들이 강제 송환되어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데 북한 당국이 생명의 존중함을 알도록.

영주권 신청진행이 잘되어 빨리 나오도록, 생업이 형통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에 더 큰 열심을 내도록, 육신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이 강건해지도록.

2. 통가 공동체
통가에 나가 있는 여러 선교사들이 무더위와 풍토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현지인들을 위한 양육 훈련이 잘 진행되도록.

젊은 공동체 답게 젊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젊음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도록, 어린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직장 속에서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하나님의 인도 하심을 받는 지체들이 되도록.

3. 교회연합
13주년 맞는 교회가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성전 안에서의 예배와 밖에서의 삶의 예배가 일치하기 위해 힘쓰는 성도들이 되도록, 겨울철 잦은 비로 인하여 감기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위해, 출타한 성도들이 건강하게 돌아오도록, 성전 건축이 어떤 형태로든지 은혜 중에 잘 이루어지도록 모든 성도들이 계속된 관심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앞장에서 시작됩니다)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과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세운 교회 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가 된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치관이 다르고, 자라온 문화와 환경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2:3 절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라고 했습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나보다 남을 더 훌륭하게 여깁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의 낮아지심을 내 인격으로 채워 당신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상대를 높여 줄 때 그 교회는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을 많이 가졌으면 합니다. 비록 우리만의 건물이 없어서 주인의식을 얼른 가지기 어렵다 해도 13살은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 가지 않겠다고 떼를 부린다거나 친구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같이 어울리지 않겠다고 해서는 안 될 나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3살의 교회는 싫은 것이 있어도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내 교회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자랑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너희 교회가 좋아"라고 한다면 그래 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도 좋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없고 자랑하지 않는 데 남들이 어떻게 자랑하겠습니까? 13살의 아이가 자기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다른 부모에게 말한다면 그것을 철이 없어서 그럴 것이다 이해해주기에는 많은 나이입니다. 자식의 눈에 비치는 부모의 모습이 온전하고 흠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부모이기에 좋아하고 감사하고 자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좋고 때로는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면 가슴이 설레고 감격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이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들것을 생각합니다.

끝으로 교회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받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회와 기독교 안에 부정적이고 잘못된 부분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내부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제도나 형식이 틀렸다고 교화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결코 그 누구로부터도 지탄이나 지적을 받을 수 없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썩을 수도 없고 무력해질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사회 단체나 국가 기관, 선교 단체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선교 단체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서 세워졌고 또 필요가 없으면 사라질 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잘못된 편견과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진정한 교회는 교파나 제도나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신부입니다. 제도는 비판받을 수 있고 사람은 허물이 있지만 진정한 주님의 교회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영원합니다.

13살의 갈보리 교회가 이제 14살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 신발을 신습니다. 비록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고 여전히 그 어려움에서 비껴가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자랑스러운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온 성도들이 함께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욕심을 내어 본다면 20주년이 될 때까지 우리 갈보리 교회의 이름으로 남태평양 지역 어느 작은 나라에 또 다른 하나의 교회가 개척되고 파송선교사와 협력 선교사를 각각 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창립 13주년을 맞으면서 갈보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비전으로 삼고 싶습니다.

- 이태한 목사